



돼지인공수정사업에 도전하는 KAIC

- 취재 : 김 동 성 -

네덜란드 유리브리드사와 기술제휴

KAIC(Korea Artificial Insemination Corporation)이 네덜란드의 유리브리드(Euribrid)사와 기술제휴를 맺고, 거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우리나라의 돼지 인공수정사업에 본격 참여를 선언,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KAIC(대표 : 이치한)은 경기도 포천에 소재한 중원종축과 그동안 고능력종돈을 수입해온 럭키금성상사가 공동 투자해 작년 11월 1일에 설립한 돼지 인공수정 전문회사.

이치한 사장은 「농축산물 수입개방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 양돈업체와 싸워 이기기 위해선

종돈의 유전형질 개량과 종모돈의 감축 등 경영합리화가 시급하다고 판단, 인공수정사업에 뛰어들었다고 KAIC 설립 동기를 설명했다.

이치한 사장은 돼지 인공수정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에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자작리에 60평 규모의 종돈사를 짓고, 미국과 영국의 검정소와 육종회사로부터 선발지수 230점 이상의 고능력종돈 9두를 1차로 도입했다. 이 중에는 일당중체량 148kg, 사료요구율 2.27, 등지방두께 2.46cm, 105kg 도달일령 119일, 선발지수 259점(이상 30~105kg 검정 성적임)으로 14,000불에 도입한 초특급 슈퍼돈도 포함돼 있다.

KAIC은 낙후된 우리나라의 인공

수정 보급을 위해 네덜란드의 동식물 육종 전문회사인 유리브리드사와 기술제휴를 맺고 인공수정 관련 기계, 기구 일체와 기술지원을 받고 있다. 액상정액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희석제도 유리브리드사에서 공급받기로 했다. KAIC은 또 생산과 연구를 담당할 박태균씨를 유리브리드사에 파견, 보름간 연수교육도 받도록 했다.

KAIC은 수입한 고능력 종돈 9두를 기초축으로 3월부터 5월까지 농장에서 자체 인공수정 시험을 한후, 6월부터 본격 영입에 들어갈 계획이다.

액상정액은 종돈의 능력에 따라 슈퍼급과 A급, B급 등 3등급으로 기준을 정해 공급할 예정인데, 슈퍼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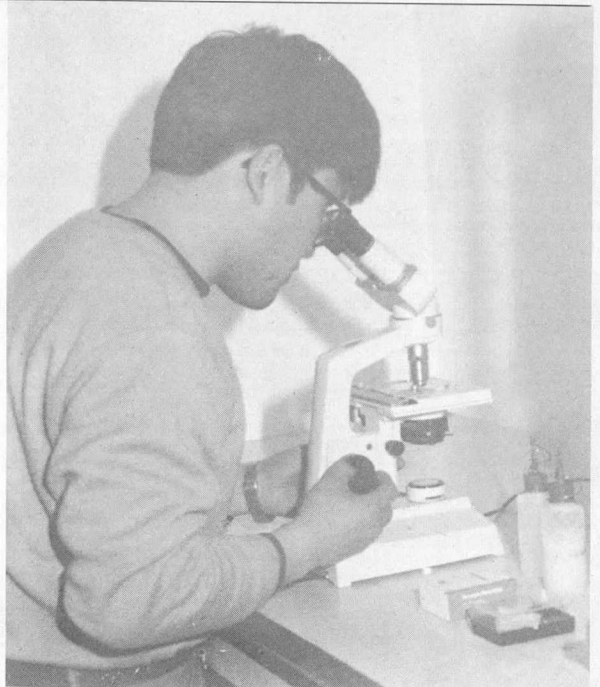
액상 정액은 슈퍼급, A급, B급 등 3등급으로 나눠 공급

은 선발지수 240점 이상, A급은 220~239점, B급은 자가검정성적 상위 3% 이내 합격돈으로 그 기준을 설정했다. 특히 슈퍼급은 국내의 검정소와 육종회사에서 구입한 종모돈으로 종돈개량용으로만 정액을 공급하고, A급은 종돈개량과 F₁생산용으로, B급은 비육돈생산용으로 정액을 공급하게 된다.

정액가격은 슈퍼급이 1두용당 90,000원, A급이 50,000원, B급이 20,000원이고 취급품종은 슈퍼급과 A급은 랜드레이스, 대요크셔, 듀록, 햄프셔 등 4품종이고, B급은 듀록, 햄프셔, DH(D×H), HD(H×D) 등이다. 슈퍼급과 A급은 양돈농가들에게 능력을 보증해 주기 위해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발행한 혈통증명서와 검정성적 증명서를 발급해 준다. 그러나 B급은 혈통증명서와 농장에서 발생하는 자가혈통증명서, 자가검정성적증명서를 발급해 줄 계획이다.

정액공급은 경기도 등 한수이북 지역은 인공수정사가 직접 농장을 방문해 인공수정을 해주고, 기타 지역은 희망농장에서 전화로 주문을 하면 당일 또는 그 다음날 고속버스 등 차편으로 우송해 줄 계획이다.

또 KAIC은 양돈농가들에게 인공수정기술을 보급해 주기 위해 매주



▲ KAIC의 박태균씨가 현미경으로 정충의 활력도 등을 검사하고 있다.

매주 화, 금요일 인공수정 교육 무료 실시 계획

화요일과 금요일 등 두차례에 걸쳐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인공수정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매년 두차례 전국 규모의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KAIC은 최근 포천읍내에 사무실(포천읍 신읍리 71-2, 전화 : 0357-33-8300)을 신축, 교육을 받으러 오는 농가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했다.

「인공수정=수태율 저하, 산자수 감소」란 양돈농가의 인식바꾸는게 성패의 열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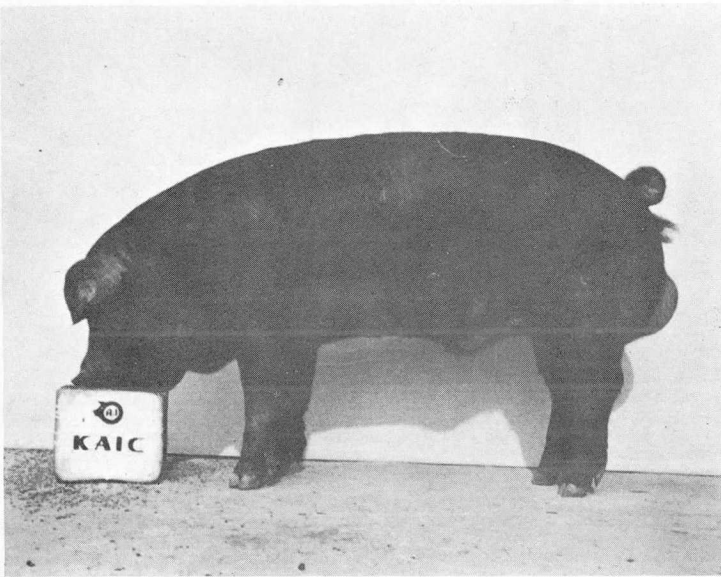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돼지 인공수정사업

을 하는 업체는 (주)한국돼지인공수정센터, 축협, 두산종축, 세종무역 등 4곳에 불과하다. 이들 업체는 액상정액을 공급하고 있는데, 동결정액에 비해 수태율이 높고 생존기간이 긴 것이 특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돼지인공수정 보급률은 줄잡아 1% 안쪽에 불과하다. 이는 선진양돈국인 미국,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 등의 보급률 20~30%에는 물론, 일본, 대만의 보급률 10~20%에도 훨씬 못미치는 미미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를 뒤집어 말하면 그만큼 우리나라는 인공수정시장의 잠재력이 크다는 것을 반증해 준다 하겠다. 특히 금년 하반기부터 돼지도체등급제가 시행되면 종돈개량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인공수정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

〈표〉 KAIC의 종모돈 등급 기준

등급	등급 기준	정액활용대상	가 격	취급 품 종
슈퍼급	선발지수 240점 이상	중돈개량용	90,000원	L, Y, D, H
A급	220~239	• 중돈개량용 • F ₁ 생산용	50,000원	L, Y, D, H
B급	자가검정성적 3% 이내	비육돈생산용	20,000원	D, H, DH, HD



▲ KAIC이 인공수정을 위해 미국에서 1만4천불에 수입해 왔다는 등록수택지

질 것이 틀림없다. 또 돼지오제스키 병과 호흡기질환이 만연된 상태에서 질병전파를 차단시키는 인공수정은 해가 갈수록 그 필요성이 더한다고 볼 수 있다. 또 자연종부시에 필요한 종모돈의 1/8만 갖고도 동일 규모의 농장을 운영할 수 있어 국제 경쟁시대에서 인공수정사업은 하나

의 흐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그러나 인공수정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선 양돈농가들의 머리속에 자리잡고 있는 「인공수정=수태율 저하, 산자수 감소」라는 인식을 어떻게 해소시키느냐 하는 것이 성패의 열쇠라 여겨진다. 또한 우편제도 등

을 통한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의 정액우송 체계가 어떻게 확보되느냐 하는 점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난제 중의 하나다. 그리고 인공수정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검정소에서 검정을 마친 종돈중 챔피언급 종돈은 의무적으로 인공수정소에서 구입케 하고,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문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검정소의 챔피언돼지 인공수정소에서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제도 추진 바람직

KAIC은 향후 10년이내에 우리나라의 인공수정 보급률을 1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개척자적 정신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KAIC은 현재 중원종축에서 시도하고 있는 비육돈의 계열화 사업과 함께 계열농가에 모돈과 사료, 약품 등 일체를 대주고 정액도 공급하는 모돈의 계열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무튼 KAIC의 인공수정사업 참여를 계기로 정부와 학계, 연구기관, 양돈업계에서는 인공수정사업의 득실을 면밀히 검토, 이제부터라도 이에 대한 연구와 제도, 자금지원 등이 뒤따라야 하겠다. **■**

